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지원

시, 시·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자 우선구매 교육 실시

전주시가 우선구매 활성화로 취약계층에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시는 20일 각 부서와 산하기관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업을 통

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날 교육에 전주시 150개 전 부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의 계약·지출 담당자들을 초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구매 설명회에서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전문위원이 강사로 초청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및 우선구매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수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덕진구 인후1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됐다.

핸드메이드 한지공예 체험에 참여한 공공구매 담당자는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한지상품이 아름답고 우수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학교 명예를 위해” 호원대학교가 20일 대학 문화체육관에서 2018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 및 씨름단 창단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민감사관 상반기 실지감사 대상 선정 협의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열려... 상반기 실지감사 4월 16~27일 진행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가 지난 19일 오후 도교육청 8층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시민감사관 5명,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대상 선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민감사관 실지감사는 상·하반기에 각각 열흘간 실시하며, 상반기 실지감사는 4월 16~27일 진행할 예정이다.

실지감사 대상은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으로,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억 원 이상의 용역과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시민감사관이 협의한 사항 ▲교육감이 감사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의견서 접수 후 1개

월 내에 감사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자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원광대 이문영, 전국대학·호남 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선임

이문영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장(사진)이 협회 임원회의에서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 및 호남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1년이다.

이문영 회장은 “동시에 두 협의회 회장에 선임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점점 감소하는 학생인구에 따라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별·유형별로 대학들 의견을 잘 반영해 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국·공립대를 포함한 202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익성=장원영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어린이 맞춤 학습지 지원 서비스 실시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전주시 지역 학습지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 이달부터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습지 지원

이 필요하면 아동 5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희망꿈터 학습지 지원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채규남 기자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발

전주시, 서학동에술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서학동에술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빗물이용 시범마을은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 시설과 관련 시설을 구축, 물 순환 체계구축(회복)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로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서학동에술마을이 전국 1호가 된다.

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일 서학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을 2동, 3동, 4동 주민들은 향후 빗물공동체를 구성, 가정에

서 떨어지는 빗물은 가정에서 처리한다’를 기본방향으로 ‘한 가정빗물 유출 제로(최소)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빗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서학동예술마을이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 시설 및 관련 시설이 구축된 빗물이용 시범마을로 탈바꿈되면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물 순환체계를 회복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영철 하수과장은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빗물마을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